

한나라당 광주 구청장·지방의원 후보 '0'

전남은 담양·진도군수·도의원 1명 신청 추가 인재 영입통해 지역 후보낼 가능성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고를 공식 마감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7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340명) 후보자 공고 결과, 단 3명만이 공천을 신청해 정치적 불모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담양군수 후보로 남상관씨, 진도군수 후보로 곽동근씨, 전남도의원(화순군) 후보로 김경남씨가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남씨와 곽씨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총선에 몇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으며 김씨는 3선의 전 화순군의원으로 군의회의장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정치 중심지인 광주의 경우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로 단 한 명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집권 여당의 체면을 구겼다.

이에 비해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광주에서 1명이 공천신청을 했으며 특히 전남에서는 3명이나 공

천신청을 해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나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 실패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출마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등 중앙 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을 확률이 떨어져 이에 선거전 참여를 꺼린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는 적지만 1~3명의 입지자가 있는 반면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집권 여당이기에 추가 인재 영입을 통

해 전략공천 등으로 공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상당수 지역에 공천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미지수다. 4년 전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집권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대선이 2년 6개월 후에 나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공식적인 후보 공보에 응한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 접수를 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략공천을 노리고 중앙당 지도부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한나라당은 추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후보자를 내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228개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총 637명이 공천을 신청,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국 680개 선거구, 2천5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후보로 각각 1천200명과 3천391명이 공천을 신청, 1.76대 1, 1.3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23일부터 공천심사를 본격화해 4월 말까지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 7명 영산강 사업 현장 방문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나주 노안면 승촌보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의 견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영진, 김재균, 이용섭, 조영택, 서종표, 김진애, 홍재형 의원이 참석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세균-정동영 2시간30분 설전

어제 단독 회동... 지방의원 공천 놓고 충돌

동고동계 DJ 사진 분실 항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 동고동계 인사들은 민주당사를 찾아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분실에 대해 항의했다.

지난달 10일 정 의원의 복당 이후 처음 이뤄진 지난 19일 회동에 이어나갈 만에 대면한 것으로, 이번에도 정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당장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정 의원은 배석자 없이 2시간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의 지방의원 전략공천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의 경우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민주당을 탈당한 정 의원 편에 서지 않았던 지역 인사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류 일각에서 전략공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상식에 반하는 일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야권 연대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도 개진했다.

전략공천설에 대해 정 대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로 협력해 정치적으로 윈윈하게 잘 풀어갈 것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회견을 끝맺었다. 정 대표는 정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과 상임고문 위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서로 오해도 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당권경쟁의 전초전 성격인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 소지는 여전히 잠복해 있어 이 같은 충돌 위기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권노갑 한광옥 전 의원 등 동고동계 인사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분실 사건과 관련,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를 찾아 “당이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라며 항의했다.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조사결과가 나오면대로 이회호 여사를 찾아 경위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대식 “공심위 면접으로 후보 뽑자”

김문일·정훈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한나라 전남지사 후보 공천방식 논란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후보 3명이 전남도지사 공천장을 노리면서 공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남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대식(47)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김문일(62)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정 훈(61) 국민통합운동본부 총재 등 3명이 도전장을 던지고 지지세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이들은 일제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일부 후보가 거리 공천방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과열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엔 후보 1명을 내기 위해 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선 경선 방법을 놓고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3명의 후보 중 김대식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위원회 면접으로 후보를 뽑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문일 예비후보와 정훈 예비후보는 국민

참여경선 또는 당원 전수 여론조사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은 당내 주요 계파를 등에 업은 것으로 파악돼 경선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김대식 후보는 이재오 권익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친 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지난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대선 출마 당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김문일 후보는 정몽준 계를 지지하고 있다. 정 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30여 개 보수 단체의 지지선언을 ‘밀천’으로 내세우고 있다. 각각 2년 후에 있을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주요 계파의 전남 교두보 역할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문일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포함한 이른바 국민참여형 경선



김대식 김문일 정훈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불모지인 전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면 경선이 도민과 당원들의 참여 속에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원 여론조사 등과 도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이 혼합된 경선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훈 예비후보도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이나 배심원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전략공천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른 후보들과 연대해 중앙당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역대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치러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중앙당이 경선방식에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2006년 도지사 후보 선출 방식으로 적용됐던 공심위 면접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경재 전 의원 평민당 후보 전남지사 출마

김경재 전 국회의원이 23일 평화민주당(가칭) 후보로 전남지사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민주를 지향하는 김대중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남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평화민주당 전남도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남지사에 출마해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뒤 “한화갑 전 대표와 함께 전남의 신진들에게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호남지역에 아무 후보나 공천해도 지역민들이 허탈없이 받아 드릴 것이라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한편, 평화민주당은 26일 순천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갖고 ‘김대중 정신 계승’을 내걸고 본격적인 지방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산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배포
현수막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